

# 문화적 전통·사회적 조건에 기반둔 자주적 학문을 정립해야

## 전국대학총학장을 위한 만찬 격려

1981년 1월 13일

친애하는 총학장 여러분!

오늘날 대학이 깊어진 막중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에 진력하고 계시는 총학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대학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민족의 흥룡과 국가의 진운을 좌우하는 중추적 사회조직입니다.

특히 지식과 고급인력의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사명과 역할은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본래적인 기능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직접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장래는 대학이 그러한 본연의 임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역사상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학문적 전통을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대학의 역사는 1세기도 채 안 되는 짧은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대학은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 우리 나라의 대학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제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거대한 고등교육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학인들의 노고와 공헌은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총학장 여러분!

나는 한국의 대학이 새 역사창조의 새로운 요청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학은 진리탐구를 위한 창조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조건에 기반을 둔 자주적 학문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학이 학문의 주체성을 상실한다면 자주적 국민정신을 형성하는 데 향도자의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외래의 학술적 이론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교육과 학술연구가 외국의 학문을 전수하고 연구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은 이제 남의 것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자기 것을 창조하는 단계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대에 부응하여 대학의 문이 더욱 넓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대중교육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중교육이 자칫 개성과 창조성이 결여된 평균적인 인간만을 양산해 내지 않도록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더욱 넓히고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한편 교권을 확립하여 면학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총학장 여러분!

학문연구의 자유와 학원운영의 자율성은 대학의 본질적 요소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요구와 자율성에 대한 주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를 주지 않고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그간 우리의 대학가에서는 일부 학생과 교수들의 국가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요구와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면학분위기가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대학 스스로 자율능력을 잃게 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총학장 여러분을 비롯한 대학교직원들은 학문지도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정력을 쏟기보다는 소요사태를 방지하는 데 골몰해야만 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960년대에 유행처럼 번졌던 「스튜던트 파워」는 이제 지난 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며,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학생들은 내일을 위해 면학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밝은 앞날을 설계하면서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힘과 슬기를 쌓아 가기에 바쁜 우리는 이제 불필요한 갈등과 고뇌에서 벗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은 더 이상 무질서와 소란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창조와 활력의 원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학장을 비롯한 교수 여러분은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전통적 사도를 확립하여 국가사회를 위한 유능한 동량을 배출해 줄 것을 이 기회에 거듭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은 시대적 요청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입니다. 지식인은 시대정신의 선각자이어야 함은 물론 그 현실에도 앞장을 서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한 길에 “어용”이니, “반체제”니 하는 흑백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방관과 냉소와 부정의 논리가 대학인의 특성인양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새 시대를 향한 민족적 전진의 대열에 우리 대학인의 능동적인 참여는 물론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지식인으로서의 응분에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총학장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